

'15만 자족도시 완주 건설'

군, 한(韓)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 16건 총선 공약 반영 건의

완주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선거구의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들에게 '완주군 미래발전 전략과제' 16건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한 '완주군 미래발전 전략과제'는 '15만 자족도시 완주' 건설을 목표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들로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군이 공약화를 요구한 '완주군 미래발전 전략과제'는 한(韓)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 4대 분야 총 16건이다.

지역 문화·관광활성화 분야에는 ▲ K-Food Village 조성 및 한국 문화관 건립 등이 포함된 한(韓)문화 관광단지 조성 ▲ 지방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조성 ▲ 유치전적지와 연계한 응치보훈공원 조성사업 ▲ 삼례 삼삼마을 조성 ▲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파을 조성 ▲ 완주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 구이저수지 수상레저 관광지 조성 등 7개 과제이다.

농업·농촌활성화 분야에는 ▲ 전북 혁신도시 내 농생명 관련기관과 연계한 아시아 농생명 연구사업 허브 조성 ▲ 시설농자재 지원센터 조성, 전용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 ICT융복합 시설농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2개 과제가 있다.

미래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에는 ▲ 탄소소재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 ▲ 상용차 전용, R&D 및 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 사회적경제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 게임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교육, 인력양성, 창업, 체험 등이 집적화되어 있는 글로벌 게임클러스터 조성 등 4개 과제가 있다.

사회적경제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 분야에는 ▲ 원주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 ▲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 완주등기소 설치 등 3개 현안이다.

이번 총선공약 제안사업은 완주군 2025종합발전계획, 희망프로젝트 등 투트랙 정책개발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정당 및 예비후보자에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비변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군, 여성일자리 창출 '앞장'

복수·씨앤지 등 여성친화일촌기업 7개 사와 협약

장수군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군청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체 관계자와 균형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가졌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군은 (주)복수 (주)씨앤지, 도개비동굴김치, (유)미성, 제일산업(주), 태양테크, (유)우담 등 7개 업체와 여성친화일

촌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으로 여성친화기업으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약체결 기업체와 안셀 코리아(주), (주)신진에스엠, (주)전본, 나뭇리조트, 장수화훼 등 관내 15개 기업체 인사담당자협의회를 갖고 기업체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 간 협력망 구축과 '시간선택제'를 활용한 기업체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수지역 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고용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빈창근 실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여성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문 지식을 갖춘 여성 인력 양성으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단고구마' 변신 시작

군농기센터, 신제품 '다호미' 7월 수확

진안군은 11일 고원의 특징인 주야간의 큰 일교차로 동화물질의 전류가 잘 되어 색이 선명하고 당도가 높은 '진안고원 단고구마'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속이 노랗고 물고구마인 일명 호박고구마는 수년간 지속재배로 퇴화현상에 따른 품질과 수확량이 저하되어 올해를 품종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구마 신품종 '다호미'를 실증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작년 '다호미' 고구마 지역적응 실증

에 참여한 박흥기(63·용담)씨는 7월부터 수확하여 추석 전에 판매를 끝내는 등 자녀로 하여금 귀농케하여 고구마를 재배하게 할 정도로 다호미 고구마에 흠뻑 빠져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와 전북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로부터 분양받은 다호미 종자는 시범사업에, 품원미 종자는 지역적응 실증사업에 사용되어 진안고원 단고구마의 새 돌파구를 마련코자 참여한 농가들로 하여금 고구마 육묘상을 설치하는 등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는 "최근 유종한 다호미, 품원미 두 품종은 현대인이 찾는 다이어트는 물론이거니와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진안 땅과 기후, 사람이 합심하면 제대로 된 맛과 효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사업과
 063-430-2951

무주덕유산CC 내일 오픈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국내 유일하게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무주덕유산CC(대표 이길범)가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오는 15일 2016년 골프시즌을 개장한다.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아드 3,251 / 아웃코스 파36, 아드 3,472)는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생식물과 기업들을 그대로 보존하며 청정 고원골프장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생동감 넘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만끽하며, 세심한 전략성을 요 구하는 수준높은 코스는 살아있는 골프의 황제 아놀드 파커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하였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며 거대한 덕유산 자락에서 전해오는 아늑함과 피톤치드 삼림욕을 함께 즐기는 일석이조의 라운드가 가능하고, 특히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무주덕유산CC는 일반요금 기준 주중 8만원부터 주말 13만원(회원가 별도/기간별 상이)이면 이용 가능하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농업인 복지사업 설명

진안군은 11일 전북도 삼락농정의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읍·면 산업담당회의를 개최하고 공동급식시설 지원 및 여성농업인 생생비우치 사업계획 등 농업인 복지사업을 설명했다.

삼락농정 6대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들은 '보람있는 농민'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마을에 급식비용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3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12만원 상당의 생생비우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공동급식시설은 신청한 곳 중 읍·면별 1개소를 선정지원하며 생생비우치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여성농업인은 자격요건이 될 경우 읍·면사무소에 4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천마 명성 지킨다

친환경 생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이 친환경 천마 생산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친환경 천마 생산 신기술 시범사업은 비가림 하우스 내에서 인공배양토를 이용해 천마를 재배하는 것으로 군은 인위적 관수와 차광시설, 복합환경(온도, 지온, 수분 등) 제어기 등을 함께 설치해 천마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지에서 천마를 재배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한 파종법과 자마생산 기술 등도 적용할 예정이어서 경영비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천마 농가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영력이 있는 5농가를 우선 선정했으며, 지난 11일에는 군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택) 담당 지도사와 농가들이 함께 전북농업기술원 김창수 연구사로부터 인공배양토 재배기술과 ICT 융·복합기술 교육을 받고 재배시설과 자마생산 시설을 견학했다.

또 농업인들이 현장 접목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 베트남 로얄가든과 수출계약 체결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의 해외 시장 개척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베트남 대표 식품유용업체인 로얄가든(Royal Garden)은 11일 오후 진안군청상황실에서 진안홍삼 2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중국, 일본, 대만 등으로의 수출은 있었지만 베트남 수출은 이번

이 처음으로 군은 이번 계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로얄가든은 베트남에서 50여개 식품매장을 갖고 있는 굴지의 식품업체로 군은 수출계약에 앞서 지난 2월 베트남 현지를 직접 방문해 수출업체의 자금능력, 매장 운영현황을 꼼꼼히 살펴봤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 쓰레기 3NO운동 전개

진안군이 쓰레기 3NO운동(안버리고, 안태우고, 안분고)의 2단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1일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쓰레기 3NO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별 부녀회장 308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리더 육성교육을 실시했다.

3NO운동의 1단계사업은 2014년~2015년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군은 308개 마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쓰레기 3NO운동 전담인력 읍·면배치, 청소차·물론박스 교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재활용품분리수거실적이 3NO운동 시행 전보다 350%이상 증가했으며, 쓰레기발생량은 11%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층 강화된 쓰레기 3NO운동 2단계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진안=우태만 기자